



MCA Seoul Exhibition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

불온한 데이터
Vertiginous Data
3, 4전시실
Gallery 3, 4
2019. 3. 23. — 7. 28.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의 삶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과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종류의 디지털 정보이자 신기술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 또한 눈에 띄게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의 사회는 개인의 일상부터 국가 단위의 시스템까지 점차 데이터화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 또한 데이터의 진화를 기반으로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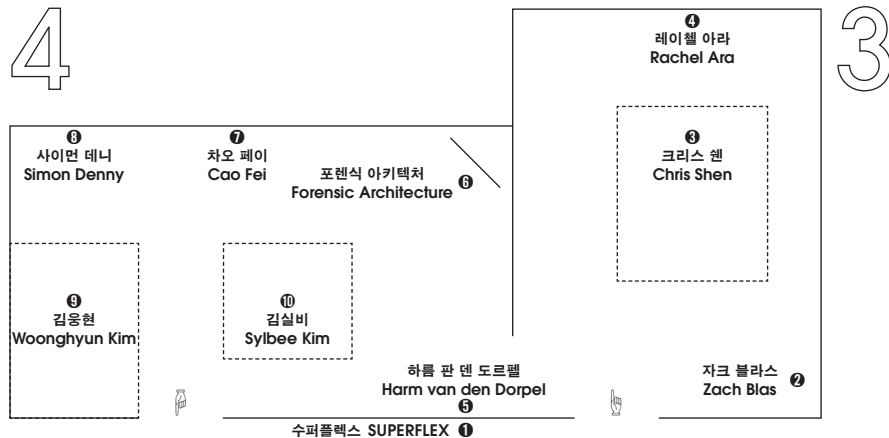
데이터를 가공, 소유, 유통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이 가진 정보를 권력화하는 것인가. 데이터를 둘러싼 맹목적인 믿음, 또는 그 근거 없는 불신과 위기감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공공의 선에 기여하도록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번 전시는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탐구하고 미학적 특징을 발견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의 참여 작가들은 데이터를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예술 표현의 폭을 넓히거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창조적 공공재를 확장하는 방식을 모색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이 소수의 권력에게 독점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반권위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탐색하는 탈중앙화를 시도한다.

동시대 미술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외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인간이 구축해 온 디지털 체계와 이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틈새'를 보여준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rrived, binding our lives ever more tightly to cutting-edge technologies like big data, blockchai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is the most familiar form of digital information to us, and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 for new technologies; ways of processing it are becoming remarkably more diverse. Entire societies, from the everyday lives of individuals to the systems of the state, are being converted into data. Our socioeconomic paradigm, too, is changing as data evol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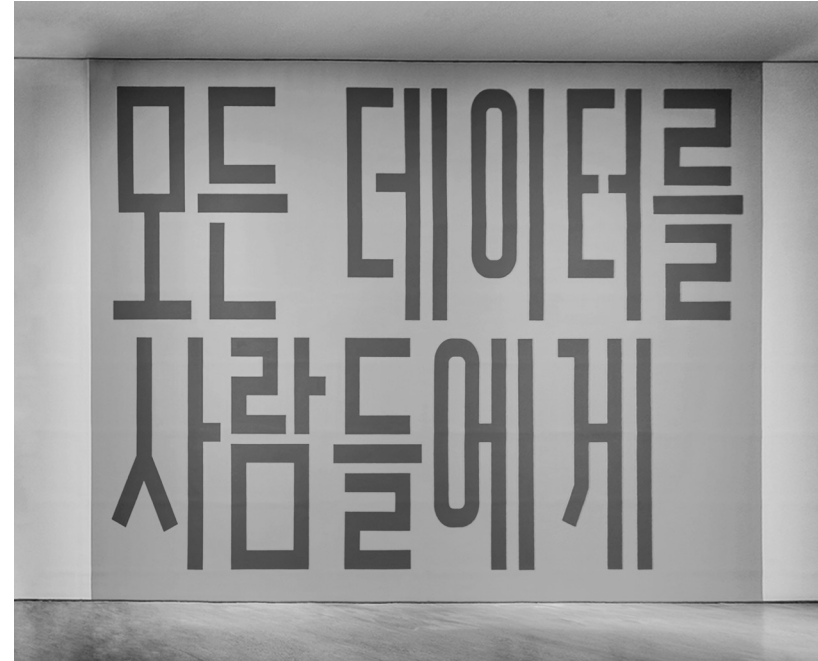
Who processes, owns and distributes data, and how do they use it to gain power? How do blind faith, groundless distrust and the sense of crisis surrounding data affect our lives? Can data really be used for the public good? *Vertiginous Data* introduces the works of artists who take these questions as a starting point for exploring digital technology and discovering its aesthetic qualities. The participating artists classify and systematise data, expanding the scope of their artistic expression, while searching for ways of using cutting-edge technology to expand creative public property. Challenging the monopolisation of data collection by an elite minority, they attempt to decentralise it in search of new, antiauthoritarian systems.

Featuring experimental works by some of today's most prominent contemporary artists, *Vertiginous Data* reveals the unpredictable gaps that emerge in the digital systems that humans build, and in the environments that surround them.



수퍼플렉스 〈모든 데이터를 사람들에게〉

2019, 벽화, 690x1050cm



수퍼플렉스 (1993-, 덴마크)
수퍼플렉스는 야콥 뱐거, 브외른스테르네 크리스티안센, 라스무스 닐슨이 1993년에 결성한 예술집단이다. 여러 매체와 관심사를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 실천들로 현대사회에서 예술가들의 역할을 시험하고 세계화와 권력 체계의 본질을 탐구한다. 자신들의 작품을 "도구", 즉 사용 가능한 것으로 여기길 원하는 수퍼플렉스는 사람들이 작품에 적극 참여, 소통하고 이에 따라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추가로 변형하거나 재정의하여 응용할 것을 제안한다.

SUPERFLEX (1993-, Denmark)
SUPERFLEX is an art collective founded in 1993 by Jakob Fenger, Bjørnstjerne Christiansen and Rasmus Nielsen. With a diverse practice that spans a wide range of media and interests, SUPERFLEX challenge the role of the artist in contemporary society and explore the nature of globalization and systems of power. SUPERFLEX describe their artworks as "tools"-something to be used, proposals that invite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and communicate-therby suggesting multiple areas of application that can further be modified and redefined by various users.

이동 경로, 거래와 관계가 끊임없이 등록되고 분석되는 세상에서 데이터에 접근한다는 것은 권력과도 같다. 수퍼플렉스는 〈모든 데이터를 사람들에게〉라는 작업을 통해 현재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불균형, 즉 우리가 경험하는 힘에 대한 정보와 분배에 대한 권리, 그리고 데이터의 가치가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집중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2014년 덴마크어로 첫 작품이 제작된 데 이어 영어,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시어로도 제작된 바 있다. 이 작업은 특정 프로젝트 및 요청에 따라 다른 언어로 제작될 수 있으며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제작되었다.

*라스무스 코흐 스튜디오와 공동으로 제작

In a world where movements, transactions and relations are constantly registered and analyzed, the access to data is equal to power. With *All Data to the People*, SUPERFLEX points out the asymmetry in the current access to data or, in other words,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distribution of power we are experiencing and how the value of data i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very few commercial and State players. After the initial production in Danish in 2014, it has now been produced in English, Arabic, German, French, Italian and Romansh and the production can be extended to other languages in response to specific projects and demands. For this exhibition, it has been produced in Korean.

*Designed in collaboration with Rasmus Koch Studio.

수퍼플렉스
〈홍해의 그린 아일랜드〉

2016, 2K 시네마스코프, 컬러, 스테레오, 13분

SUPERFLEX
The Green Island in the Red Sea

2016, 2K cinemascope, Color, Stereo, 13min



〈홍해의 그린 아일랜드〉는 코펜하겐 남부 지방자치 도시 발렌스베크에서 일어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로봇 시민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영상은 1970년대 로봇을 시민에 통합하는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추진된 진보적인 캠페인을 추적한다. 발렌스베크 시민들은 도시가 경제 위기와 포퓰리즘 개혁의 위협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정치사상과 생활양식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로봇을 시민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채택한다. 이 영상은 과거의 궤적들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한편 자동화된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낸다. 로봇 공동체를 위해 권리를 확보하는, 어쩌면 허구적인 이 역사 이야기는 로봇의 권리를 둘러싼 새로운 의문들을 제기한다.

In *The Green Island in the Red Sea*, SUPERFLEX presents the untold history of the robot citizenry of Vallensbæk, a suburban municipality south of Copenhagen. The film work traces Vallensbæk's development history beginning with its progressive campaign for a robot integration policy in the 1970s. Dreaming of a city resilient to the threats of economic crises and populist reforms, the citizens of Vallensbæk adopted policies to integrate robots into the human population, thereby securing continuity of political thoughts and lifestyle. By presenting a narrative of the trajectory of the past, the film challenges seeming certainties of our present and opens discussion around the prospect of an automated future. The perhaps fictional history of securing rights for one city's robot community raises current and emerging questions around the rights of the robots among us.

자크 블라스
〈얼굴 무기화 세트〉

2011-2014, 혼합매체, 가변크기



photo: Christopher O'Leary

〈얼굴 무기화 세트〉는 안면인식 기술로 탐지될 수 없는 무정형의 가면으로, 안면인식 기술이 보여주는 불평등에 저항한다. 자크 블라스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의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여 '집단 가면'을 제작했다. 이 가면들은 동성애자의 안면인식 데이터를 모아 성적 지향을 결정짓는 과학 연구에 대응하거나, 생체인식 기술이 피부색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특징에 근거해 인종차별 문제, 그 밖에도 페미니즘, 국경 보안 기술이 야기한 폭력과 민족주의를 다룬다. 이 가면들은 정치적 대표 집단의 지배적 형태를 거부하며 집단을 변형시키는 불투명한 도구로서 사회 운동에 활용된다.

Zach Blas
Facial Weaponization Suite

2011-2014,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자크 블라스 (1981-, 미국)
자크 블라스는 예술가이자 필름메이커, 저술가로서 기술조사, 이론연구, 개념주의, 퍼포먼스, 공상과학 소설 등 폭넓은 영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체인식, 퀴어, 페미니즘의 미래상, SF 등을 아우르는 그의 작품들은 소수자를 위한 정치, 보안, 통제 기술 및 권력 구조에 대한 대안을 주제로 다룬다.

Zach Blas (1981-, U.S.A.)
Zach Blas is an artist, filmmaker, and writer whose practice engages technical investigation, theoretical research, conceptualism, performance, and science fiction. Embracing various topics including biometric recognition, queer and feminist theories, and science fiction, his work investigates the politics of marginal groups and alternatives to dominant power structures such as politics, security, and control technology.

Facial Weaponization Suite protests against biometric facial recognition - and the inequalities these technologies propagate - by making "collective masks" in community-based workshops that are modeled from the aggregated facial data of participants. This results in amorphous masks that cannot be detected by biometric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These masks respond to scientific studies that link determining sexual orientation through facial recognition techniques or highlight the racism of biometric technologies that are not able to detect dark skin. They also comment on feminism and the violence and nationalism caused by border security technology. These masks intersect with social movements' use of masking as an opaque tool of collective transformation to reject dominant forms of political representation.

크리스 헨
〈위상 공간 360〉

2018, 로봇 청소공 360개, TV 모니터, 라이브 카메라, 1200×900cm



〈위상 공간 360〉은 작가가 로봇 청소공의 기술적 특징을 조형적인 오브제로 탈바꿈 시킨 작품이다. 바닥에 놓인 360개의 로봇 청소공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들의 운동 궤적은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송출된다. 공들의 위치와 운동량, 회전, 진동으로 만들어내는 점들은 화면에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복잡하게 얽힌 나선형의 선들을 만들어 낸다. 작가는 로봇 청소공을 하나의 입자로 보고, 이들의 움직임이 기록되는 전시장 공간을 위상 공간으로 상징했다. 즉 위상 공간 상의 한 점이 한 입자의 상태를 운동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기술하듯, 화면 위의 추상적인 선들은 개별 로봇 청소공의 운동 상태와 모든 자유도를 기록한다. 작가는 카를로 로벨리의 『모든 순간의 물리학』을 인용하며, 실 새 없이 움직이는 이 로봇 청소공을 우주 공간에 무리지어 나타나며 끊임없이 탄생과 소멸을 거듭하는 기본 입자에 비유한다. 작가에 따르면 이 입자들은 마치 우주의 문자처럼 무수히 다양한 조합을 이루며 은하의 거대한 역사까지 설명한다.

프로그래머: 조지 프로펜자

Chris Shen
Phase Space 360

2018, 360 robot cleaning balls, TV monitor, Live camera, 1200×900cm

크리스 헨 (1988-, 영국)
크리스 헨의 작업은 테크놀로지와 예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새로운 형태의 언어를 지향한다. 특히 작가는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방식의 기본 원리와 복잡한 구조의 도구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헨은 기술의 신뢰 문제, 예측 가능성, 기술의 정상화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일상의 오브제를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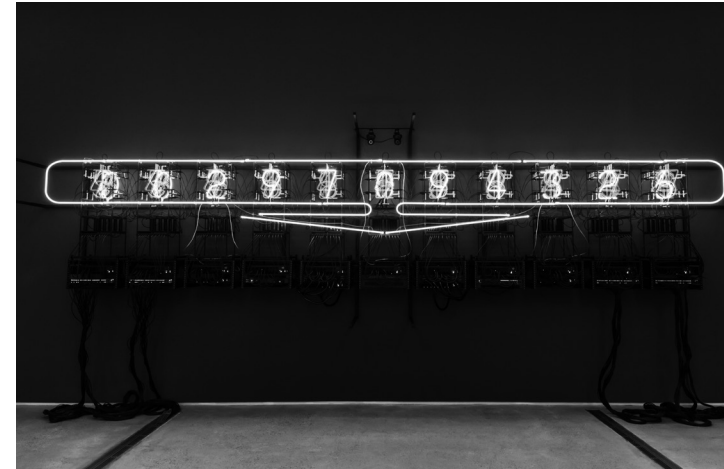
Chris Shen (1988-, U.K.)
Operating at the intersection of technology and art, Chris Shen's work pursues a new language to explai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Shen has been exploring basic principles of how people use technology and how tools with complex structures influence people's lives. He uses objects from everyday life to question trust, predictability, and the normalization of technology.

In Phase Space 360, the artist has repurposed the technical features of robotic cleaning balls to create a moving sculpture. Numerous cleaning balls glide freely over the floor and their movements are sent to a screen in real time. Their locations, momentum, rotation, and points created by their vibrations result in intricate spiral lines, constantly appearing and disappearing on the screen. Shen saw robot cleaners as particles and the exhibition space in which they move as a phase space. Abstract lines on the screen record the motion state and the degrees of freedom of individual balls, just as one point in the phase space perfectly describes the state of a particle in terms of motion. Referencing Carlo Rovelli's *Seven Brief Lessons on Physics*, Shen likened the ever-moving cleaning balls to basic particles that appear in space, constantly appearing and disappearing. According to him, these particles form a myriad of combinations, just like the elements of the universe, and can even explain the long history of galaxies.

Programmer: George Profenza

레이첼 아라
〈나의 값어치는 이정도
(자가 평가 예술작품): 한국 버전〉

2019, 네온 127개, 재활용된 서버룸 장비, 전자 장치, 컴퓨터, IP 카메라, 프로그래밍, 756×204×105cm, 약 400kg



레이첼 아라 (1965-, 영국)
레이첼 아라는 젠더와 기술, 권력 체계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개념 및 데이터 아티스트다. 25년간 기술 산업 분야에서 일하며 습득한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독특하고 놀라운 설치, 조각 작품을 만들어낸다. 아라는 페미니스트 및 퀴어에 대한 관심과 유머, 아이러니를 결합시켜 사회정치적으로 일반적인 관습을 거부한다.

Rachel Ara (1965-, U.K.)
Rachel Ara is a conceptual and data artist who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technology and systems of power. As a multi-disciplinary artist, she has a diverse skill set developed over 25 years working in the tech industry. She brings her experiences together to make unique and often surprising installations and sculptures. Her works are nonconformist with a sociopolitical edge, often incorporating humor and irony with feminist and queer concerns.

이 작품은 '엔도서'라는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해서 보여주는 디지털 아트다. 작품에 설치된 웹카메라가 집계한 관람객 수 및 SNS, 작품 거래 사이트, 종합 주가 지수인 FTSE 100에 작가와 작품명이 언급된 횟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작품값이 네온으로 나타난다. 작가는 성별과 인종, 나이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작업에 포함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자신과 작품의 가치, 가격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탐색하고 '나의 값어치'가 나타내는 값이 작품의 실제 가치와 갖는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작품가를 영국 파운드에서 원화로 표시하도록 4자리 값을 추가하여 재제작했다.

This Much I'm Worth (The Self-evaluating Artwork): Korean Version is a digital art piece that continually displays its sale value through a series of complex algorithms called 'the endorsers'. The numbers made of neon tubes show the value of the artwork by tracking any mentions of the artist or the work on social media, art pricing sites and the FTSE 100 index, and recording the number of exhibition visitors recorded through a web camera in real time. Ara designed the program to include identity information such as sex, race, and age by using 'the endorsers'. The artist explor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value of her or her work is determined and questions the association of values represented by her installation with the intrinsic worth of the work. This version of the work has been made for Korea and so displays the price in Won meaning an extra four digits had to be added on to the work.

하름 판 덴 도르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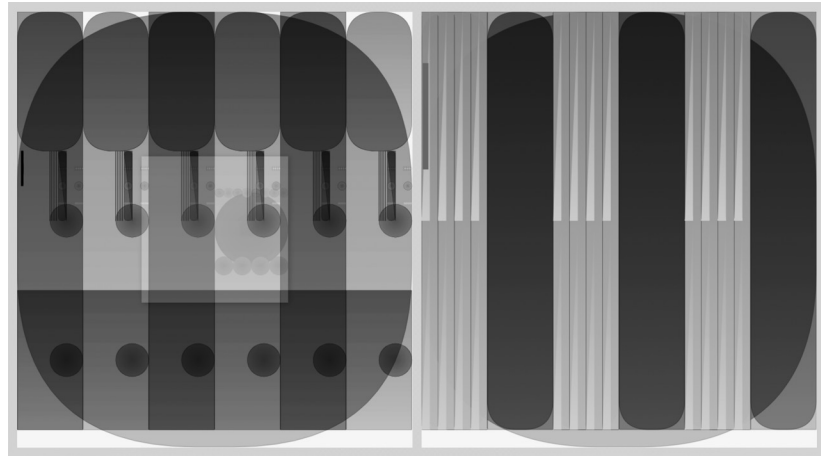
<내포된 교환>

2018, 생성 소프트웨어, 무한 반복재생, 무성, 4K,
한스 판 뤼크 컬렉션, 작가 및 업스트림 갤러리 소장

Harm van den Dorpel

Nested Exchange

2018, Generative software, Infinite duration, No sound, 4K,
Courtesy of Hans van Luijk collection,
The Artist, and Upstream Gallery Amsterdam



<내포된 교환>은 언어,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건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포' 구조에 주목한다. 작가가 개발한 생성 소프트웨어는 그가 사전에 결정한 모집단에서 두 가지 디자인을 취한 후,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모양과 패턴을 자동으로 만들도록 고안되었다. 여기에 작가는 각각의 작업에 고유한 식별 정보를 부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모든 활동을 표시하여 변화하는 작품의 모습이 마치 스냅샷처럼 기록되도록 했다.

판 덴 도르펠은 예술가가 손으로 직접 제작해야만 하는 전통적인 예술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프로그래밍하여 예측할 수 없는 미적 결과물을 생산해 낸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간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전 작품 <죽음은 언어를 모방한다>와 마찬가지로 작가는 이 작품에서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언어와 예술작품의 구조를 비교하고, 레이어와 구성을 활용해 어떻게 2차원 평면을 채워나갈지 질문한다.

Nested Exchange focuses on the structure of 'nesting', a strong organizing principle found in architecture, software development and human language. A generative software invented by the artist himself is designed to select two designs from a determined population and to automatically create new shapes and patterns through the process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the two designs. On top of that, the system records all the performances of the network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n order to identify each work as a kind of snapshot of a certain moment.

Unlike other traditional artistic mediums that require the artist to create the work with their own hands, Van den Dorpel programs software and trains it by looping continuous feedback through its output in order to produce works with unpredictable aesthetic outcomes. Like his earlier series *Death Imitates Language* that used a genetic algorithm, he compares the construction of language to the construction of artworks and, in doing so, refers to the question of how to fill the two-dimensional plane using composition and layering.

하름 판 덴 도르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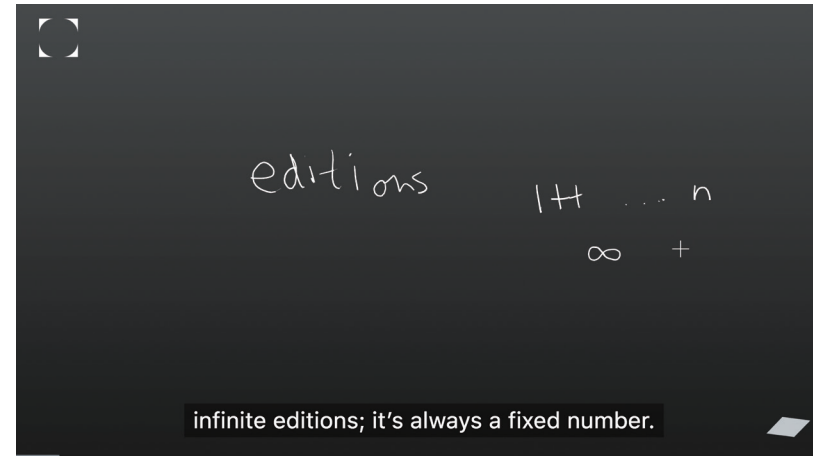
<레프트 갤러리 설명자>

2018, 애니메이션 강의, 33분, 작가 및 레프트 갤러리 소장

Harm van den Dorpel

left gallery Explainer

2018, Animated lecture, 33m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left gallery



하름 판 덴 도르펠(1981-, 네덜란드)
하름 판 덴 도르펠은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예술가로 조각, 클라주, 컴퓨터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등 광범위한 실천을 하고 있다. '넷아트'라는 개념적 유산에 뿌리를 둔 판 덴 도르펠의 작품은 신경망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의 작품에서 기술은 우리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도구이자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작가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술 하드웨어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술 발전에 의해 변화하는 인터페이스 양상을 탐구하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Harm van den Dorpel
(1981-, Netherlands)

Harm van den Dorpel's broad practice includes sculpture, installation, works on paper, and computer-generated graphics and software. Rooted in the conceptual heritage of net art, van den Dorpel's works often simulate neural networks. The role of technology in his works is a means to an end: a tool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our experience. He seeks to produce works that explore not only the technological hardware we use in our daily lives, but how we use it and the modalities of interface that are created, enabled, facilitated and restricted by the advance of technology.

이 영상은 하름 판 덴 도르펠이 2016년부터 온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프트 갤러리(<https://left.gallery>)'에 대한 설명이다. 레프트 갤러리는 다운로드가 가능한 파일 형태의 오브제를 제작 의뢰하고, 생산 및 판매하는 현대미술 갤러리로, 이렇게 생산된 오브제는 블록체인으로 저장되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구입 가능하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가상 갤러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미술작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미래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left gallery Explainer is a video clip that explains about left gallery, which is an online-based gallery launched in 2016 by the artist himself. left gallery is a contemporary art gallery that commissions, produces and sells downloadable objects. These objects are stored with blockchain technology and can be purchased using cryptocurrency. This new concept of virtual gallery discovers future possibilities fo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rtworks through blockchain technology.

포렌식 아키텍처 〈지상검증자료〉

2018, 싱글채널 비디오, 10분 15초, 작가 소장



Forensic Architecture Ground Truth

2018, Single-channel video, 10min 15sec,
Courtesy of Forensic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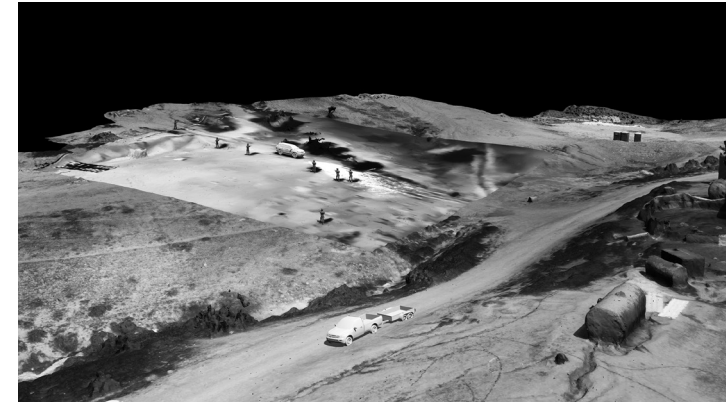
포렌식 아키텍처 (2010-, 영국)
포렌식 아키텍처는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에 기반을 둔 연구 단체로, 건축가, 예술가,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학자, 변호사 등 다양한 영역과 학문의 협력자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2010년 메일 바이츠먼 교수가 처음 결성한 이래 포렌식 아키텍처는 국제 검찰과 인권, 사회, 정치 및 환경 단체를 대표하여 건축과 미디어에 대해 진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렌식 아키텍처는 비판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공적 진리가 어떻게 기술적, 건축학적, 미학적으로 생산되는지, 또 어떻게 그 진리가 새로운 형태의 국가 폭력에 맞서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지상검증자료〉는 이스라엘 네게브/나카브 사막의 북쪽 경계에서 발생한 베두인족의 강제이주와 폭력의 역사를 주목한다. 포렌식 아키텍처는 여러 단체와 지역민들의 협력으로 '시민 위성'을 만들어 항공 및 지상관측 사진 등 모든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다. 다양한 미디어와 데이터, 증언이 결합된 정보들은 영토 투쟁의 역사를 담은 것으로, 이 투쟁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바뀐 환경과 그 변화가 야기한 갈등을 연결시킴으로써 이 마을에 가해진 폭력을 증명한다.

Ground Truth is an ongoing project that focuses on the displacement of a Palestinian Bedouin village and the violent history surrounding it which happened in the northern threshold of the Negev/Naqab desert, Israel. Forensic Architecture worked with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 local community to create a 'citizen satellite' that collects information from all media, including aerial and ground-view pictures. The combined information is a history of land struggles that proves the violence inflicted on the village along with various media, data and testimony by linking the long-term and large-scale shift of environment and the conflicts it has caused.

포렌식 아키텍처 〈움 알-히란에서의 살인〉

2018, 싱글채널 비디오, 11분 28초, 작가 소장



Forensic Architecture (2010-, U.K.)

Forensic Architecture (FA) is a research agency based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consisting of architects, artists, journalists, software developers, scientists, lawyers, and an extended network of collaborators from a wide variety of fields and disciplines. Founded in 2010 by Prof. Eyal Weizman, FA undertakes advanced architectural and media investigations on behalf of international prosecutors,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groups, as well as political and environmental justice organizations. Through their detailed and critical investigations, FA presents how public truth is produced—technologically, architecturally, and aesthetically—and how it can be used to confront authority and to expose new forms of state-led violence.

이 작품은 이스라엘 공산당 및 이스라엘 국회의 공동 명단 (조인트 아랍 리스트)의 지원을 받아 다큐멘터리 사진가 단체인 액티브스틸스와 움 알-히란 마을과의 공동 작업으로 제작되었다.

2017년 1월 18일 새벽 이스라엘 경찰은 팔레스타인 베두인족을 추방하기 위해 움 알-히란의 베두인 마을을 급습했다. 이 급습으로 베두인족 마을 주민인 야쿰 무사 아부 알-키안과 이스라엘 경찰 에레즈 레비, 두 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 정부와 경찰은 알-키안이 "테러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가 테러리스트 단체인 ISIL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포렌식 아키텍처는 액티브스틸스와 함께 알-키안이 받은 혐의를 면밀히 조사하여 모순점을 드러내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 조사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테이트 브리튼에서 열린 <2018 터너 프라이즈>전에 전시되었다.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ActiveStills and the village of Umm al-Hiran, with support from the Israeli Communist Party and the Joint Arab List in the Israeli Parliament.

Shortly before dawn on 18 January 2017, Israeli police raided the Bedouin village of Umm al-Hiran to force Bedouin communities away from land earmarked for new Jewish settlements. Two people were killed during the raid: Yakub Musa Abu al-Qi'an, a Bedouin and resident of the village, and Erez Levi, an Israeli policeman. Israel's government and police claimed the deaths were the result of a "terror attack" by al-Qi'an and suggested that he had links to the terrorist group ISIL.

Forensic Architecture worked with a group of documentary photographers, ActiveStills, to scrutinize the allegations against al-Qi'an, exposing glaring inconsistencies and contradictions. The results and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were displayed at *Tate Britain's Turner Prize 2018* exhibition.

차오 페이 〈룸바 01 & 02〉

2016, 로봇 청소기, 가변크기,
작가 및 비타민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소장



Photo: Pablo Enriquez / MoMA PS1

Cao Fei Rumba 01 & 02

2016, Automatic cleaning machine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Cao Fei and Vitamin Creative Space

차오 페이 (1978-, 중국)
차오 페이는 영상과 설치 작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 대중 미학,
초현실주의, 다큐멘터리와 같은
예술 실천을 혼합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차오 페이의 작품은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빠르고 혼란스러운 변화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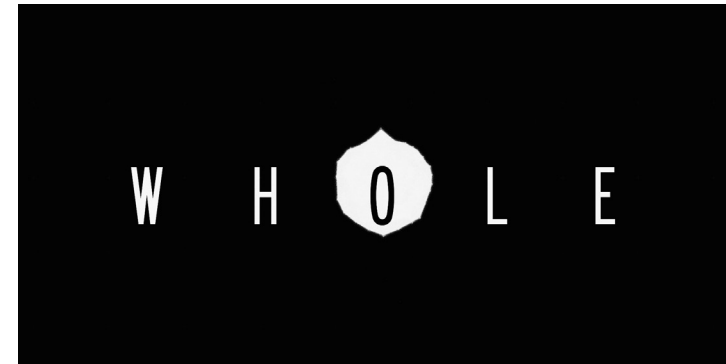
Cao Fei (1978-, China)
Mainly working on videos and
installations, Cao Fei combines
artistic practice in social
discourse, public aesthetics,
surrealism, and documentary.
Her work reflects the fast and
confusing changes happening
in Chinese society.

〈룸바 01 & 02〉는 자율주행로봇의 특징을 가진
로봇 청소기로 주변을 이동하면서 전체 면적과 위치정보를
기억한다. 이 때문에 좌대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룸바는 결코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가전제품이지만 비좁은 공간에서 계속 맴돌기만
하는 룸바의 모습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첨단 기술 분야의
도약으로 빠르게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사회 양극화와
세대격차 등 사회적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중국 사회의
현주소를 암시한다. 작가는 작가 특유의 낙관적인 전략으로
이러한 모순과 위기를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작품으로 구현했다.

Rumba 01 & 02 are two autonomous vacuum
cleaners that remember the size of a space and
the locations of objects. Because of this they
can be constantly moving on a pedestal yet
never fall off. Although it is a state-of-the-art
appliance, its continuous hovering in a cramped
space speaks to today's China, which has
emerged as an economic powerhouse due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leaps forward
in technology, yet also experiences intensifying
social conflict with social polarization and a
growing generation gap. The artist used everyday
materials to implement these contradictions and
crises in this work with her own optimistic strategy.

사이먼 데니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2016, HD 싱글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3분



사이먼 데니 (1982-, 뉴질랜드)
설치, 조각, 프린트,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사이먼 데니는
기술 산업이 사회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소셜 미디어, 스타트업 문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부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Simon Denny (1982-, New Zealand)
Mainly expressing himself
through installations, sculpture,
printing and video, Simon Denny's
work observes and analyzes
the socio-political influence
of the technology industry,
social media, start-up culture,
and the rise of blockchain and
cryptocurrencies.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는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 기술인 블록체인의 사용 확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다. 기술적 유투피아를 광고하는 이 영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완벽한 신뢰를 보장하고, 국가 간 경계가
없으며, 모든 개인이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상세계를
제시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된 점점을 연결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정보는 투명한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모든 이의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행, 국가, 무역단체와 같은 제3의 기관을
통해서만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검증이
자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은 모든 개인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고, 더 나아가 완벽한 시장, 정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중앙집권적인 관리체계가 개인의 진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반면,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진실인 것이다.

This work explains blockchains and the
technology behind virtual currencies such as
Bitcoin. It advertises a technological utopia where
national borders no longer exist, with blockchain
technology ensuring perfect "trust" in financial
transactions - an ideal world where individuals
can readily access the entire globe. Rather than
simply exchanging digital currency through
blockchains. This technology ensures the
accuracy and security of our information through
decentralized, yet interconnected nodes. Because
information would be a transparent public asset,
it would be accessible by anyone. Whereas
information is currently entrusted to designated
third parties only, such as banks, governments,
or trade agreements, blockchains automate
verification, thereby enabling all transactions
to be recorded by themselves to create perfect
markets, information systems, and personal
transactions. While our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inevitably distorts the truth of individuals,
the blockchain is the truth that represents us all.

김웅현
〈밤의 조우〉

2019, 비디오, 사운드, 컬러, 30분, 국립현대미술관의 커미션으로 제작

Woonghyun Kim
Night Meeting

2019, Video, Color, Sound, 30min,
Commission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김웅현 (1984-, 한국)
김웅현은 데이터 환경과 원격 신체, 정보의 왜곡에 관심을 갖고 영상 작품과 퍼포먼스, 설치를 통해 대체-서사를 구성하는 방식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사회적 화두와 가상현실 요소를 조합해 허구의 설정을 뒤섞어 작가만의 실재를 창조해낸다.

Woonghyun Kim (1984-, Korea)
Fascinated by the data environment, remote body, and information distortion, Woonghyun Kim presents alternative narratives through performances, installations and video. He creates his own world by combining social issues reported in the media with virtual reality elements.

신작 〈밤의 조우〉는 데이터 기반의 환경이 초래한 평면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번 작업은 2018년부터 총 6부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작으로 〈후미프락티엔〉(2018), 〈란빠삼란〉(2018)에 이은 세 번째 작품이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달려져 버린 생존환경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은 인류는 알 수 없는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고립한다. 주인공 토마스 고메즈 또한 닥치는 대로 검색한 정보들로 생존을 도모하고 고립을 자처한다. 20년 후 토마스는 더 나은 곳으로의 이주를 꿈꾸며 집 밖을 나서게 되는데 우연히 진짜 "사람"과 조우한다. 한편, 작품의 내용은 〈밤의 조우〉는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 『화성 연대기』(1950)에 수록된 단편의 내용을 각색한 것으로, 현실적인 사회 문제들이 미래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암울한 전망에서 유발되는 공포의 지점과 맞닿아 있다.

The artist's new work, *Night Meeting*, tells the story of people living in a flat world caused by a data-driven environment. This is the third in a six-part series, following *Fumipratien* (2018) and *Ranpasamran* (2018). Mankind, which has survived despite the environment changing overnight without reason, isolate themselves from the unknown fear. The main character, Thomas Gomez, tries to survive with any information he can find and isolates himself. Twenty years later, Thomas leaves the house dreaming of moving to a better place, and then accidentally encounters a real person. Inspired by Ray Bradbury's novel *The Martian Chronicles* (1950), the grim prospect that the problems of society will not be solved in the future echoes the themes of the book.

김실비
〈금융-신용-영성 삼신도〉

2019, 싱글채널, 4K HD 변환, 컬러, 소리, 벽화, 11분 22초,
국립현대미술관의 커미션으로 제작

Sylbee Kim
Trinity: Finance-Credo-Spirituality

2019, Single-channel 4K HD, Color, Sound, Wall painting, 11min 22sec,
Commission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김실비 (1981-, 한국)
김실비는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영상 설치를 중심으로 작업한다. 작가는 역사적 기록과 도상을 현실에 병치하고 이 과정에서 미래의 여러 가능성을 제안하는 시형각적 언어를 구축한다.

Sylbee Kim (1981-, Korea)
Living and working in Berlin and Seoul, Sylbee Kim is best known for her video installation work. She juxtaposes historical records and iconologies with reality through which she establishes audio-visual language that suggests various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신작 〈금융-신용-영성 삼신도〉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적 도안을 합성하여 만든 벽화로 덮은 성소 안에 싱글채널 영상과 조각 3점으로 구성된 영상 설치 작품이다. 영상의 안과 밖에서는 원시적 감각과 함께 동시대의 기술 조건을 해석한 환경이 펼쳐진다. 울동적인 보이소버로 들려오는 서사는 금융, 신용, 영성의 순서로 비약하면서 신기술이 인간 삶의 조건을 변형시키는 단계마다 여전히 발현하는 오래된 가치들을 조명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동시에 전시장에 매달린 인공신경망, 비유기적인 신체 등을 모티프로 한 조각들은 '태국적 신세계'의 신체성을 상상하게 한다.

Sylbee Kim presents a single-channel video alongside three sculptures set in a sanctuary covered with murals composed of religious symbols from around the world. The installation's prehistoric vibe illustrates the artist's interpretation of the technological condition of our time. Rhythmic voiceover sheds light on antique values that are still present at every phase where new technology transforms people's living conditions, through leaps between languages in finance, credit and spirituality. The sculptures' motifs appearing in and outside the video includ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inorganic bodies, suggesting physicality from primordial time.

관람시간

월, 화, 수, 목, 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금, 토: 오전 10시 — 오후 9시

입장료

서울관 통합 관람권 4,000원
금,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 (오후 6시 — 9시)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운영시간(매일) 오전 8시 — 오후 11시
시간당 2,000원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165)
+82 2 3701 9500

Opening Hours

Mon, Tue, Wed, Thu, Sun: 10:00 — 18:00
Fri, Sat: 10:00 — 21:00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4,000won
Under 24s or over 65s: Free
Every Fri & Sat 18:00—21:00: Free

Parking

Daily Hours: 08:00 — 23:00
2,000won per hour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65, Sogyek-dong)
+82 2 3701 9500

www.mmca.go.kr
newsletter.mmca.go.kr
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
youtbue.com/mmcakorea
tv.naver.com/mmca

교육 프로그램

상시 현장 참여교육

1. 전시 참여 작가와 함께하는 <불온한 글쓰기>

김웅현 작가의 작품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글짓기 프로그램

2. 미디어 인터랙션 체험 <버그버그>

데이터의 공격을 피해 다니는 솔라잡기 형식의 게임아트 체험프로그램

일시

2019. 5. 3.~5. 31.
월~토: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2019. 6. 1.~7. 27.

월~금: 오후 1시 — 오후 5시
토: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교육동 2층, 작업실 1

특별 워크숍

기술 창작작 가족워크숍 <소리의 시각화>

소리를 데이터화 하여 빛으로 반응하는 ‘미디어 벽화 만들기’
공동 워크숍
참여방법: 온라인 사전신청

일시

2019. 5. 4.~5. 25.
토: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오후 2시 — 오후 4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교육동 2층, 작업실 1

※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홈페이지(www.mmca.go.kr) 참조

Education

1. <Vertiginous Writing>

Writing program about following stories after watching
video filmed by Woonghyun Kim

2. <Bug Bug>

Interactive hide-and-seek game

Opening Hour

3~31 May 2019. Mon.~Sat. 10:30 — 17:00
1 June ~27 July 2019. Mon.~Fri. 13:00 — 17:00 / Sat. 10:30 — 17:00
Location: MMCA Seoul, Education Center, Workshop Gallery 1

Workshop

<Visualization of Sound>

Cooperative making media wall made with changed light
which react to sound.

Opening Hour

4~25 May 2019. Every Sat. 10:30 — 12:30 / 14:00 — 16:00
Location: MMCA Seoul, Education Center, Workshop Gallery 1